





2013년 통권 제 5 호

# 歷史紀行班 秋季古蹟踏查



亞洲大學校 史學科 歷史紀行班



# 목 차

답사일정 ...	7
우리가 가는 길 ...	8
서울 지역개관 ...	9

## 궁(宮)

(1) 경복궁 ...	13
(2) 경희궁 ...	17
(3) 덕수궁 ...	20
(4) 창경궁 ...	22
(5) 창덕궁 ...	24

## 종묘

(6) 종묘 ...	29
------------	----

## 서대문형무소

(7) 서대문형무소 ...	35
----------------	----

## 릉(陵)

(8) 서오릉 ...	40
(9) 온릉 ...	44

## 읽기자료

(10) 을사조약 ...	48
(11) 을미사변 ...	52
(12) 고종 ...	56



## 답사 일정

### ▶ 첫째 날

아주대학교 출발 → 창덕궁 → 창경궁 → 경복궁  
→ 덕수궁 → 경희궁 → 서대문형무소 → 숙소 도착

### ▶ 둘째 날

숙소 출발 → 온릉 → 서오릉 → 아주대학교 도착

# 우리가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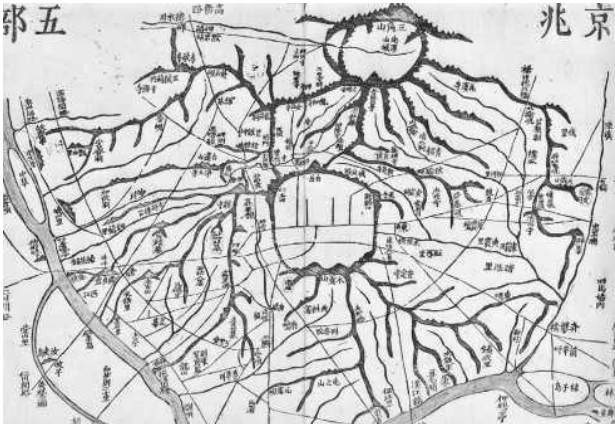


TP.1 종묘	6 경희궁
2, 3 창덕궁, 창경궁	7 서대문형무소
4 경복궁	8 온릉
5 덕수궁	9 서오릉



# 서울 지역개관

13 이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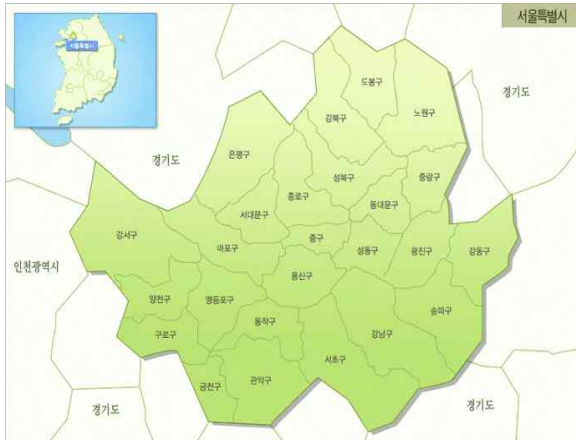
▲ 한양의 지도

대한민국 인구의 약 1/5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서울)는 한국의 수도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예부터 중요 도시였다. 평양이나 부여, 경주 및 개성이 ‘서울’이던 삼국시대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서울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이는 서

울 지역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한강 하류유역이 이 지역의 다스리는데 따라 각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는 필연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삼국시대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삼각산 일대를 정복한 신라인들의 감격을 돌에 새긴 진흥왕순수비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대변한다. 또한 백제의 경우,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서 서울이 백제 초기의 도읍지였다는 점 이외에도 삼국간의 군사적인 충돌지역 혹은 삼국 통일의 완수를 위한 최후의 거점이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고려시대의 서울은 개경 일대에 근거지를 둔 고려의 지배층들이 ‘남경(南京)’이라 부른 곳으로, 이미 고려 문종 때 궁궐을 짓고(1067) 숙종(1095~1105)이 서울로의 천도 계획까지 세웠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일이 전혀 새로운 발상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가 1394년 한양부로 수도를 천도한 후 이듬해 이름을 바꾼 것이 한성부이다. 천도 이후 한성부에는 각종 공사가 시행되어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당시 한성부의 영역은 현재의 종로구와 중구보다 좁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태종 때에 궁궐을 확장하고 상가를 지으며 도시를 확장시켰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도시가 많이 파괴되었지만 19세기에 많이 복구되었으며 19세기 말에는 각종 근대 문물의 도입으로 수도로서의 면모를 더



웁 갖추었다.

한성부는 1910년 일제에 의하여 경성부로 개칭되어 1945년까지 경기도의 하부 조직의 하나가 되었다.<sup>1)</sup> 경성부라는 이름은 수도가 있는 서울이라는 성곽을 가리킨 뜻이지만, 그 의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제는 일본식 발음인 ‘게이조’로 불렀다.

그 후 1945년 광복 후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경성을 다시 서울로 고쳤으며, 1949년에는 서

- 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서울 지역은 풍수적 공간관과 유교적 이념에 따라 조성된 계획도시이자 상징 도시였다. 한양은 외사산(外四山)<sup>2)</sup>으로 먼 경계를 두르고, 내사산(內四山)<sup>3)</sup>의 능선을 따라 쌓은 타원형 성곽으로 성 안팎의 공간을 구분했으며, 도성에는 모두 8개의 문을 내었다.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청문의 사대문을 두었고, 그 사이에 광희문, 소의문, 창의문, 혜화의 사소문을 두어 도성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로 삼았다. 사대문마다 중앙의 보신각(普信閣)까지 인·의·예·지·신의 유교적 덕목을 각 방위의 마디점에 새긴 도성 공간은 유교적 이상주의의 산물로서, 군자들이 사는 유토피아의 꿈을 구현한 이상향적 공간이었다. 또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서울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수륙교통이 편리하며 군사적 방어에도 유리하다. 한강으로 조운(漕運)이 통하고 도로가 균등하며, 배와 수레교통이 좋아 주민들의 생활이 편하여 도읍으로서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동남쪽을 제외하면 모두 좁은 고개를 통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 군사적 방어에도 유리한 곳이었다. 한양이 한반도 전역을 통치할 도읍지로서 최적의 선택지였던 이유는 한양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운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는 1910년의 한일 합방과 함께, 같은 해 9월 30일에 시행된 조선총독부지방관제에 의하여 ‘경성부’로 개칭되어 경기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2) 외사산(外四山): 북쪽의 북한산, 남쪽의 관악산, 동쪽의 용마산, 서쪽의 덕양산

3) 내사산(內四山): 내사산은 조선시대 한양(서울)을 둘러싸고 있던 4개의 산, 즉 당시 서울 4대문안 4개 산을 가리킨다. 내사산은 북쪽의 북악산(백악산), 동쪽의 낙산(타락산), 남쪽의 남산(목멱산), 서쪽의 인왕산이다.

## 궁(宮)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 경복궁

13박송미, 13박효진



▲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섯 개의 궁궐 중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곳으로, 왕이 기거하며 정치를 펼치게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 중건되었다.

이런 많은 뜻을 담은 경복궁의 창건 배경을 한번 보면,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의 개국과 더불어 한양

에 도움을 정하고, 주요한 국가적 시설물인 4)종묘와 사직, 궁궐을 지었어. 이는 또한 흠어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으뜸궁궐인 경복궁의 창건은 새롭게 개국한 조선왕조의 기반을 다지고 국가적 사업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창건된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황해도 의주로 피난 간 왕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질러 타버렸다. 그러다가 대원군은 조선 말기 이래로 외척의 세도에 밀려 추락된 왕실의 존엄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의 재건을 결심했다. 공사 착수 당시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대원군은 이에 굽히지 않고 총책임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이에 호응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츰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대원군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를 강행하여서 여러 무리가 뒤따랐다. 이러한 국절을 겪으면서도 대원군의 끈질긴 고집으로 1868년에 공사는 사실상 완성되었다. 중건된 경복궁은 조선 말기의 건축·공예·미술의 결정체라고 할 만한 것으로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건축 당시에는 왕족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적인 타격 또한 막심하여 대원군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경복궁 중건을 통해 조선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얼마안가 명성황

---

4)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追尊)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왕가의 사당

후시해사건, 조선총독부사건으로 수난을 겪게된다. 이처럼 경복궁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와 같은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백성들과 함께 몸으로 겪어냈기에 더욱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으로써의 의의를 가진다.

##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경복궁(景福宮)의 정문

임진왜란때 소실되어 중건되지 못하다가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재건으로 다시 옛 모습을 되찾았다. 한일 병합 조선총독부가 해체하여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북쪽에 이전시켰고, 설상가상 6·25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전통적인 광화문의 모습을 상실한 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복원시켰다.

## 경복궁의 심장, 근정전



▲ 경복궁의 외전인 근정전

운 비석이 있다. 근정전 진하도를 보면 근정전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근정전 5)박석은 통행에 편리함을 주기위한 돌인데 1박 2일에서 보면

근정전은 국보 제 223호로 1395년에 경복이 창건된 이후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사신 접견등을 거행하던 장소이다. 경복궁의 중심이 되는 정전이며,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근정전에는 “품계석”이라는 공식 행사를 치를 때 신하들이 벼슬에 따라 정렬하도록 세

알 수 있듯이 비오는 날 경복궁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데, 그 이유가 바로 박석 때문이다.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박석을 통해서 흐르는 빗물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이유로 비오는날 보는 경복궁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 경복궁의 침전, 강녕전. 교태전



▲경복궁의 강녕전(왼쪽)과 교태전(오른쪽)

강녕전은 왕이 생활하던 침전으로 6)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지붕’이다. 왜 용마루가 없냐하면, 용아래에 왕이

잘수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 또한 용마루가 없다. 용마루가 없는 두 전각은 강녕전과 교태전이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중궁 또는 중전으로 불렸다. 교태전이라는 명칭은, 지천태, 즉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롭게 화합하여 만물이 생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경복궁, 경회루

옛날 만원짜리 지폐뒤에 있던 것이 바로 경회루인데, 경회루는 “경”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에 “회” 연회를 베풀던 누각이라는 뜻으로 인공연못에 견고하게 세운 단일평면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목조누각이다. 여러 갈래로 물길을 나누어 연못이 썩지않게 하고 미를 위해 두 섬을 만들어 미적인 부분을 충족



▲ 경복궁, 경회루

5) 얇고 넓적하게 뜬 돌. 통행에 편리함을 주거나 적이 지하로 침입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깔아놓음

6) 지붕 가운데 부분에 높이 올린 틀. 용을 상징

시켰다. 용마루를 높여 웅대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지붕의 물매가 급하고, 측면 지붕에는 큰 7)합각의 삼각형이 생겼는데 건물 평면이 커서 시각적으로 조화되어 있다. 이 집은 건축기술상 너무 커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잘 처리하여 견고하게 지었다. 한 의 모습국목조건축기술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이 누각은 화려한 8)단청 그림자가 연못 속에 드리워지면 그 영상이 또한 매우 아름답다

---

7) 지붕 위 양옆에 박공으로 '人'자꼴을 이룬 각

8) 목조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서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한 것.



# 경희궁(慶熙宮)

13 차대준



▲ 경희궁

경희궁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경희궁의 본래 이름은 경덕궁이었다. 광해군 때 건축되었는데, 임진왜란 직후에 대부분의 궁궐들이 손실되어 머물 곳이 없었기에 임금이 한양으로 온 후에 월산대원군의 집을 임시행궁으로 쓸 정도였다. 이렇게 전쟁 후

에 황폐해진 궁궐을 해결해 나가려 했던 사람이 광해군이었다. 광해군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하고 인경궁과 경희궁을 창건하였는데, 그의 재위 기간 내내 이러한 건축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러한 건축 공사를 이용해 왕의 권력을 보여주며 왕권 강화를 할 수 있었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리한 건축 공사 요구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폐위의 구실 중 하나가 되어 재위 기간 중의 오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렇게 재위 기간 중의 오점으로 꼽힌 이유로 광해군이 건축을 도모하던 인경궁은 인조반정에 의해 완공을 보지도 못한 채 허물어지고 만다. 하지만 경희궁은 유일하게 창건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희궁의 터가 인조의 아버지의 집터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게 건축된 경희궁은 이궁으로써의 역할은 하였지만 폐위된 왕이 건축한 궁궐이었기에 창건 당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경희궁의 건축이 끝났을 때에는 1500칸이 넘는 담장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 궁궐이었다. 경희궁이 지어진 목적이 임금이 유사시에 본궁을 떠나 잠시 머무는 곳으로 지어진 곳이었지만 이렇게 큰 규모와 여러 임금들이 많은 중요한 정사들을 본 곳이기 때문에 동궐인 창덕궁에 대해서 서궐이라고 인정받을 정도이었다.

본래의 경희궁의 이름은 경덕궁이었지만 영조 때에 영조가



▲ 줄어든 궁터의 경희궁

경희궁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 이유는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의 사호가 ‘경덕’이었기 때문인데, 비록 한자는 달라도 음이 같기 때문에 경희로 바꾼 것이었다. 영조가 즉위하였을 때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으로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경희궁에서 정사를 보게 되었다. 또한, 경희궁에서 여러 임금들이 승하하거나 태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중요하고 큰일이 경희궁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1829년(순조)에 큰 불이 나서 큰 규모의 경희궁의 절반가량이 불타버렸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 ‘서궐영권도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건물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또한, 순조 다음의 임금들도 부분적인 수리를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후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희궁의 대부분이 철거되고 일본인들의 학교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때 중요시 여겨지고 여러 임금들이 복원과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곳이 일본인들의 학교로 사용된 것이다. 참고로, 경희궁은 서울의 다섯 곳의 궁궐들 중 가장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한다. 거의 자취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훼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1907년에 일본 통감부 중학이 들어서고 1915년에는 경성중학교가 설립되면서 궁내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철거되거나 훼손되었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도 이곳을 소중히 다루려는 노력은 없었다. 궁터에 서울중고등학교가 들어서면서 궁터의 땅은 일제강점기 때 보다 더욱 줄어들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희궁은 서울의 다섯 곳의 궁궐들 중 하나로써 임금들이 유사시에 본궁으로부터 떠나있으면서 정사를 보고 머물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건축한 궁궐이고 경희궁은 그 목적에 맞게 충분히 역할을 해나갔다고 한다. 영조 또한 창경궁과 창덕궁이 불타서 없어진 시점에 경희궁에서 정사를 보며 지낼 수 있었고 다른 여러 임금들도 경희궁에서 지내며 정사를 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경희궁의 건물은 그 당시 정궁인 경복궁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복궁은 남향으로 외전과 내전이 앞뒤에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경희궁은 외전과 내전이 좌우에 나란히 놓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그리고 궁의 외부 문은 모두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잘 보존된 정문은 홍화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홍화문은 경희궁 창건 때의 건물로 보존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인의 절의 문으로 쓰이다가 오늘날에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현재 경희궁에는 ‘용비천’이라는 샘터가 남아 있고 그 이외에도 한동안 학교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서며 많은 변화와 훼손이 있었지만 옛 건물의 기단과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일화이지만 경희궁은 ‘야주개 대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



▲ 홍화문

다. 경희궁의 정문인 홍화문 일대에는 밤에도 글씨의 광채가 훤히 비추었고, 그 정도로 밤에 들어오는 빛이 많아 홍화문 일대를 ‘야주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덕수궁

13 이원옥



▲ 덕수궁 전경

덕수궁은 서울에 중구 정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궁이다. 사실 처음에 이 궁에 이름은 덕수궁이 아니었고, 최초의 건물에 용도 또한 왕이 거처하기 위해 지은 궁도 아니었다. 원래 이 터는 조선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자택이 위치 한 곳이었다. 즉, 원래는 권력가 개인에 집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하지만 임진왜

란이 시기에 피난 가있던 선조가 전쟁이 끝난 후 한양으로 돌아 왔을 당시에 기존에 선조가 거취 하던 궁은 모두 불에 타고 소실되어서 선조는 이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 거처로 삼고, 이후 주변에 몇 개의 집들을 묶어 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본격적인 궁으로 사용되던 시기는 선조의 다음 왕인 광해군 시기 때 부터였다. 광해군은 이곳을 경운궁으로 명칭하고, 창경궁으로 이전하기 전인 약 4년간 이곳을 본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많은 다사다난을 겪은 경운궁은 조선말 고종황제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지금의 덕수궁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잠시 임시거처로 사용되었던 경운궁이 덕수궁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조선 말 본 궁으로써의 역할을 한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을미사변<sup>9)</sup>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을미사변을 겪은 후 고종을 일제에 무자비한 모습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약 1년간의 생활동간 러시아는 고종을 빌미로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1년간의 피난생활을 청산한 뒤, 기존의 본 궁이 경운궁으로 환궁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몇 년간의

9) 을미사변: 1895년(고종 32)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주동이 되어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하고 일본세력 강화를 획책한 정변.



▲고종황제

외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함을 보여주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연호를 '광무'로 개칭하고, 황제 즉위식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독립제국임을 선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단한 사건임이 분명하고 그 장소가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이었다는 점에서 덕수궁은 특별한 장소임이 분명하다. 그 후 순종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고종이 거주하던 시기에 비로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으로 개칭되게 된다.

많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시련을 겪은 덕수궁은 1904년 원인 모를 화재에 의해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 후 궁을 복원하기 위해 재건하던 때, 당시에 전파되던 많은 서양적 건축양식을 본 따 복원하게 된다. 당시에는 세련된 궁을 짓기 위해 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 우리들은 역사적인 곳의 변화가 아쉬울 따름이다.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문의 변화이다. 기존의 덕수궁의 정문은 남쪽에 위치한 인화문 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리과정에서 북문을 정문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안문'으로 불러 졌던 문을 '대한문'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궁들과는 다르게 전통양식과 서양의 양식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창경궁

13 정의석



▲창경궁 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에 위치한 창경궁은 사적 123호이다. 과거와 외사산과 내사산, 명당수의 위치도, 동궐의 위치도 그대로이지만, 오늘날의 모습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다고 묘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다.

창경궁의 북동쪽에는 성균관 대학교와 명륜동이 있고, 창경궁의 동쪽 즉, 홍화문 앞을 지나는 창경궁로를 건너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다. 그 외에 다른 방향에서도 고층 건물과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한 것으로 보아 번잡한 도심 속에 자리한 궁궐로, 배산 입수의 명당이 아니라 빌딩들 가운데 자리 잡은 분지로 비유할 수 있겠다. 보통의 궁궐들은 외곽을 높은 담장으로 쌓고 동서남북에 4대문을 설치하여 남북을 축으로 남쪽부터 정문, 중문, 정전, 편전, 침전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창경궁은 이 배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동향한다. 그 이유로는 동쪽으로 명당수가 흐르고, 멀리 낙산이 있으며, 남서북으로는 가깝게 구릉으로 둘러싸여있어 배산입수로서의 입지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창경궁의 정문은 홍화문이다. 홍화문 앞쪽으로는 민가가 없고 함춘원의 정원과 이어져 문 밖 마당에서 신당을 세워 자주 무과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임금이 직접 홍화문으로 나와 백성을 만나기도 하였다. 영조는 균역법 시행전에 홍화문에 나가 양역에 관한 의견을 묻고, 방민들의 의견에 따라 균역법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경궁의 홍화문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던 임금의 마음을 닮아 소박하고 편안한 느낌을 자아낸다.

명정전과문정전은 외전에 해당한다.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이고, 문정전은 편전이다. 의전은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을 만나 의식, 연회 등 행사를 치르는 공간이다. 외전의 중심은 정전인데, 궁궐에서 외형상 가장 화려하고 권위가 있어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건물이다. 편전은 왕이 주요 신료들을 만나 공식적인 회의를 열던 곳이다. 창경궁은 정전인 명정전이 동향하고 있어 특이한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창경궁 창건당시 성종도 “내가 생각하기를 임금은 반드시 남쪽을 면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창경궁은 동향인지라 임금이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여긴다.” 라고 인정하였다고 한다. 창경궁이 왕이 정사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명정전이 동향하여도 무방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 진다.

창경궁은 순종 즉위 후 일제에 의해 손상된다. 일제는 궁 안의 전각들을 모두 헐어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설치하고, 공원을 일본식으로 바꿨다. 또한 이름을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격하시키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벚꽃을 수천 그루 심어 벚꽃놀이를 하기도 했다. 일제 식민주의자들은 창경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하기위해 경관의 자연화를 뒤집어엮고, 새로운 상징물을 세우고 용도마저 변경하였다. 창경궁을 방문하는 경성사람들은 일제의 의도대로 창경원을 경험하곤 놀이공원의 이미지를 가지곤 했다고 한다.

# 창덕궁(昌德宮)

13 박정재



▲자연과 조화를 이룬 창덕궁 후원

조선왕조의 도읍지로서 한양을 설계하여 재정비한 사람은 태종이었다. 태종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한 뒤 기존의 경복궁이 있음에도 다시 궁궐 하나를 더 짓도록 명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창덕궁이었다. 그리고는 1405년 10월 한양으로의 재천도를 단행한 뒤 새로 지은 창덕궁으로 들어가 정사를 보기 시작하였다. 애초에

지어진 경복궁 대신 창덕궁을 선택함으로써 태종대에는 창덕궁이 정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후에도 창덕궁은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거처했던 궁궐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이미 정궁인 경복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덕궁을 다시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이복형제들과의 왕권 쟁탈전 과정에서 많은 살육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복궁에 머무르는 것을 꺼려했던 점이고, 둘째는 창덕궁의 뛰어난 자연과의 배치이다. 경복궁은 신하들이 설계했다면, 창덕궁은 왕(태종)의 의도에 따라 설계된 곳이었다. 그래서 경복궁은 임금이 효율적으로 일하기에만 편하게 설계 되었을 뿐 인간이 살기에는 답답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반면에, 창덕궁은 산자락을 따라 건물들을 골짜기에 안기도록 배치하여 한국 궁궐 건축의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고 있으며 왕이 쉴 수 있는 정원 영역을 많이 만들었다. 또한 비원으로 잘 알려진 창덕궁 후원은 다양한 정자, 연못, 수목, 피석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곳이다. 이러한 창덕궁의 외향적 아름다움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으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창덕궁은 복구된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sup>10)</sup> 등 조선의 3대 궁궐은 모두 소실되었다. 당시 조선은 이렇다 할 방어 대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선조는 피난을 가기 바빴다. 그런데 선조와 피난 행렬이 도성을 나선 직후 큰 화재가 일어났고 궁궐은 전부 불에 타버렸다. 전란 이후, 선조는 창덕궁의 복구사업을 우선으로 시작하였다. 창덕궁의 복구공사가

10) 昌慶宮：서울 종로구 와룡동(臥龍洞)에 있는 조선시대의 궁궐. 독립된 개별 궁궐이라기보다는 창덕궁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강한 궁이었다.





▲1988년에 복원된 창덕궁 인정문의 모습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여 어려운 재정 조건 아래서도 궁궐과 왕실관계 건물 복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1609년 창덕궁의 주요 건물들이 대부분 재건되고, 1611년, 광해군은 창덕궁을 거처로 삼았다. 이때부터 창덕궁은 경복궁을 대신하여 조선의 정궁 역할을 하면서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재건될

때까지 역사의 중심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에 의해 중건되었던 창덕궁과 창경궁은 인조(仁祖) 때 다시 소실되었다. 창덕궁은 1623년 서인들이 일으킨 쿠데타군이 궁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에 타버렸고 이듬해 이괄의 난으로 인해 창경궁 역시 소실되었다. 이후 파괴된 양궁의 복구공사는 1633년(인조11년)에 시작되었다. 효종 이후 역대 왕들이 대부분 이 양궁에서 태어나 왕으로 즉위했고, 또 이 양궁에서 생을 마감했다. 다시 말해서, 창덕궁과 창경궁은 조선왕조 정치와 행정의 중심무대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도 창덕궁은 상당한 시련을 겪었다. 그것은 빈발했던 화재와 경복궁의 중건, 일본의 침략 등 역사적 격변에 따른 부침이기도 했다. 1833년 대화재로 인해 상당수 전각<sup>11)</sup>들이 소실되었으나 1년 만에 원상복구 되었다. 1868년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경복궁 중건사업이 끝나면서 국왕은 경복궁으로 이어<sup>12)</sup>하였다. 이는 경복궁이 정궁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했음을 뜻하는 것이자 동시에 창덕궁의 정궁으로서의 역할이 끝났음을 뜻하는 사건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궁궐로서의 본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제에게 국권을 상실하면서부터는 본래의 모습과 왕궁으로서의 위엄을 잃고 말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제는 창덕궁의 후원(後苑)을 일반인에게 공원으로 개방하여 궁궐 본래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였다. 또 1917년 화재가 발생하자 일본인 기사에게 복구사업을 맡겼더니,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왜식 건물로 복구하는 등 마구잡이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궁궐에 남아 있는 조선왕조의 위엄을 뿌리 채 흔들어 조선인들의 과거에 대한 회억<sup>13)</sup>마저도 아예 없애버리려는 일제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나마 1900년대 후반 복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1) 殿閣 : =궁궐

12) 移御 : 임금의 거처하는 곳을 옮김.

13) 回憶 : 돌이켜 추억함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東闕圖)

현재 남아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규모는 약 20% 남짓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남아있는 현재의 모습만을 놓고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창덕궁은 건물을 자연지형에 맞추어 짓다 보니 대칭적으로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창덕궁은 궁궐 전체의 구조를 3가지 차원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정전과 정문으로 이루어진 외전, 왕실의 각종 전각과 관서들로 이루어진 내전, 그리고 정원이라 할 수 있는 후원이 그것이다. 따라서 창덕궁에는 중심을 관통하는 축이 3개가 있는데, 정문인 돈화문이 한 축을 이루며, 주건물인 인정전이, 또 다음에는 편전이 각각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저 하나의 축으로만 되어 있다면 단순해서 재미가 없을 것이고 무질서하게 여러 축으로 되어 있으면 규범이 없어 보인다. 창덕궁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규범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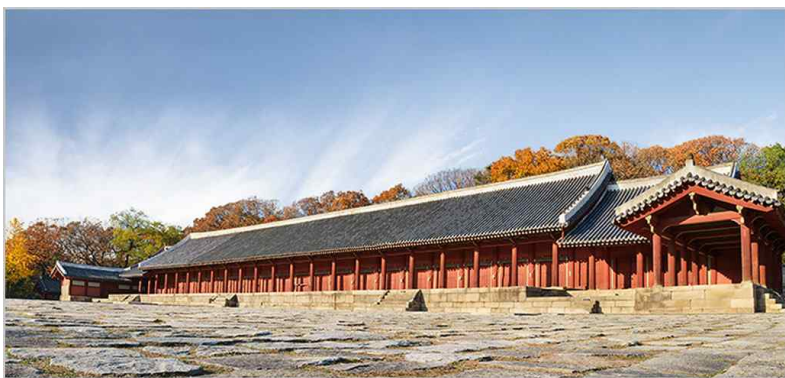
종묘

종묘



# 종묘

13 김수연



▲ 종묘 정전

종묘는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위치한,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왕 및 왕비의 신주(神主)를 봉안한 사당이다. 태조가 나라를 세워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도성의 좌측인 동쪽에 종묘를 그리고 우측인 서쪽에 사직단을 짓는 일이었다. 사직단은 종묘와 함께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이는 조선을 세운 태조가 한양에 수도를 정하고, 궁궐과 종묘를 지을 때 함께 만들었다.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국사단은 동쪽에,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국직단은 서쪽에 배치하였으며, 신좌는 각각 북쪽에 모셨다. 제사는 2월과 8월 그리고 동지와 설달그믐에 지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나 가뭄에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그리고 풍년을 비는 기곡제들을 이곳에서 지냈다. 1902년 사직단과 사직단의 임무를 맡는 사직서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사직을 끊고 우리 민족을 엽신여기기 위하여 사직단의 격을 낮추고 공원으로 삼았다. 1940년 정식으로 공원이 된 사직공원이 옛 사직단의 자리이다.

종묘를 도성에 배치한 원칙은 고대 중국의 도성 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주(周)나라 왕실의 관직과 공업 행정 및 영선제도를 기록한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 “종묘는 도성 내 왼쪽인 동쪽, 사직은 오른쪽편인 서쪽에 둔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주례(周禮)』의 배치원칙에 따라 종묘는 정궁인 경복궁의 왼쪽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현재의 종묘는 5만 6,000평 정도이고 종묘를 구성하는 주요 건물은 정전과 영녕전을 비롯하여 망묘루, 향대청, 공민왕신당, 어숙실, 전사청, 제정, 공신당, 칠사당, 수복방, 악공청 등이 있다. 정전은 조선 초기에는 태조의 4대고조(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의 신주를 모셨으나 그 이후로는 당시 재위 왕의 4대조와 역대

왕 중에서 특히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태조의 신위가 있기에 ‘태묘’라고도 부른다. 처음에는 태실 7칸과 좌우에 딸린 방이 2칸인 규모였으나 명종 때 4칸을 증축하여 태실 11칸이 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것을 1608년 광해군 때 복구한 후 영조, 현종 때 각각 4칸을 증축하여 현재 태실 19칸의 규모가 되었다. 태실 1칸에 왕과 왕비를 함께 모시며 태실과 태실 사이는 벽이 아닌 발을 늘어 구분하였다. 현재 정전에는 서쪽에 있는 태실로부터 태조와 왕비, 태종과 왕비, 세종과 왕비, 세조와 왕비, 성종과 왕비, 중종과 왕비, 선조와 왕비, 인조와 왕비, 효종과 왕비, 현종과 왕비, 숙종과 왕비, 효종과 왕비, 현종과 왕비, 숙종과 왕비, 영조와 왕비, 정조와 왕비, 순조와 왕비, 문조와 왕비, 헌종과 왕비, 철종과 왕비, 고종황제와 황후, 순종황제와 황후의 신주가 각각 모셔져 있다. 정전은 왕과 왕비의 혼백이 머무르는 곳이므로 하늘에 있는 궁이라는 뜻에서 ‘천상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상들의 이와 같은 믿음은 돌 하나, 조각 하나에도 그대로 드러나, 정전으로 오르는 계단에 해와 구름을 새김으로써 정전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표현하였다. 모셔야 될 왕들의 신조가 늘어남에 따라 1421년 세종 때 ‘영녕전’이라는 별묘를 건립하여 태조의 4대조를 옮기고 그 후에 정전에 모시지 않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 제사하던 곳이다. 가운데 부분의 4실은 양쪽보다 높게 꾸며 태조의 4대조이자 왕으로 추존된 목조, 익조, 탁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주를 모셨으며 서쪽으로부터 정종과 왕비, 문종과 왕비, 단종과 왕비, 덕종과 왕비, 예종과 왕비, 인종과 왕비, 명종과 왕비, 원종과 왕비, 경종과 왕비, 진종과 왕비, 장조와 왕비, 의민황태자(영친왕)와 태자비의 신주가 각각 모셔져 있다.

망묘루는 제례 때 임금이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망묘루라는 건물 이름은 정전을 바라보며 종묘사직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연못방향으로 1칸은 누마루를 구성하였다. 망묘루 옆의 연못은 세종 25년(1443)에 조성되었으며, 사각형으로 판 못 가운데 둥근 섬을 조성하였다.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연못의 섬에는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궁궐 연못에는 소나무를 심은 것과는 다르다.

향대청은 향·축·폐(香祝幣)와 제물을 보관하고, 제례에 나갈 제관들이 대기하던 곳이다. 남북방향으로 긴 뜰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건물을 배치하였다. 정면 9칸과 반측면 1칸 반으로 간결한 구조이다.

망묘루, 향대청이 일곽을 이루는 건물군에 별당으로 건립된 공민왕신당이 있다. 종묘 창건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신당의 내부에는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sup>14)</sup>가 같이 있는 영정(影幀)과 준마도(駿馬圖)가 봉안되어 있다. 이 신당의 공식 명칭은 ‘고려공민왕영정봉안지당(高麗恭愍王影幀奉安之堂)’

이다.

어숙실은 제례를 올리긴 전에 임금이 목욕재계하고 제례를 준비하던 곳이다. ‘재계하는 날에는 그 거처를 생각한다.’<sup>14)</sup>는 말에 따라 이곳에서 임금이 의복을 정제하고 세자 및 헌관(獻官)<sup>15)</sup>과 함께 제사 준비를 하였다. 담장과 정문 및 동서협문으로 둘러싸인 어숙실 일곽은 뜰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 서쪽에 건물을 앉혔다. 정전이 동쪽 방향에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어숙실은 재궁 또는 어재실이라고도 한다. 동쪽 건물은 세자재실(世子齋室), 서쪽 건물은 어목욕청(御沐浴廳)이다. 제례 시 임금과 세자는 어숙실 정문으로 들어와 목욕재계하고 서쪽협문을 통해 정전과 영녕전으로 향하였다.

전사청은 종묘 제사 때 사용하던 그릇, 물건, 운반 기구 등을 준비하던 곳이다. 1395년 종묘를 지을 때 함께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1608년 선조 때 다시 지었다. 전사청 앞에는 검은색 돌을 깐 널따란 단이 있는데 이것을 ‘천막단’이라 부르며, 이 단에서 제사 지낼 음식과 음식 차림을 심사하였다고 한다.

제정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맑고 차며 시원한 샘이 흐르는 곳에 만든 우물이다. 제례 때 마다 이곳의 깨끗한 물을 떠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우물의 깊이는 약 4미터 정도이다. 우물 주위로는 담장을 둘러 주위를 경계하고 남쪽에 사주문을 세워 출입케 하였다.

공신당은 조선왕조 때 공로가 큰 신하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창건 때는 3칸에 불과하였으나 9칸으로 늘렸고 이후 다시 16칸으로 늘려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공신당 앞에는 각 임금 때 공신이었던 신하들의 이름이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칠사당은 봄(春)의 사명(司命, 삼명의 감찰을 주관)과 호(戶, 출입을 주관), 여름(夏)의 조(竈, 음식을 주관), 가을(秋)의 문(門, 출입을 주관)과 여(厲, 살벌을 주관), 겨울(冬)의 행(行, 도로의 행작을 주관)과 중류(거처를 주관)를 모시고 제사하는 사당이다.

수복방은 제사를 담당하던 관원과 노비들이 거처하던 건물이다. 정전 동문의 북쪽 방향으로 담장 사이에 이어져 있으며,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정전 안쪽으로 남쪽 끝 칸에 관문을 달았다. 북쪽 3칸은 모두 온돌방이며, 앞면 서쪽에는 툇마루를 놓았다.

악곡청은 악사들이 대기, 연습하던, 건물로 한 채만이 남아 있다. 원래는 12칸 중 중앙 2칸만 마루를 깔고 나머지 10칸에는 방이 있던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기둥과 지붕만이 남아 있다. 악공청의 기둥은 매우 독특한데, 수리적이고 철학적인

---

14) 고려 제31대 공민왕의 정비(正妃). 원나라 공주출신으로 위왕(魏王)의 딸이며 이름은 보탑실리(寶塔失里)라고 함.

15)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임시로 임명되는 제관.

의미를 담아 8모 뿐만 아니라 16모로도 짰다.

중세 동양 건축의 백미(白眉)로 일컬어지는 종묘는 지난 1995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록되었다.

종묘에서 행해졌던 종묘 제례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국가적인 행사이다. 역대 임금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나라의 으뜸가는 행사이자 통치 질서의 기본이었다고 한다. 종묘 제례는 조선시대 당시 춘하추동의 첫 달과 그해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일제강점기 때 중단되었다가 1971년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대제를 올리고 있다. 한편 종묘 제례는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56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제례 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 무용 등을 총칭하여 ‘종묘제례악’ 또는 ‘종묘악’이라고 한다.



서대문형무소

서대문형무소



# 서대문형무소

13 유지연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統監府)<sup>16)</sup>와 이사청(理事廳)<sup>17)</sup>을 설치한다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는데 이를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한다. 이로 인해 강제 체결한 늑약에 반대하는 투쟁이 전국에서 일어난다. 항일 투쟁이 거세지자 일제는 애국지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입구

1907년 근대식 감옥의 설계를 시작하여 다음해인 1908년 '경성감옥(京城監獄)'을 완공한다. 처음에 5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대규모로 설계되었지만 105인 사건<sup>18)</sup>을 시작으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투옥되면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1912년 마포구에 다른 감옥을 세우고 경성감옥을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한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여 전국에서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 감옥의 수감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제는 서대문감옥 기존 건물을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감옥으로 신축한다. 1923년 감옥 체도를 형무제도로 바꾸면서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을 변경하고 광복이 오기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고문 받거나 처형당하였다. 광복 직전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이 약 2,890명에 달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하에 '서울형무소'로 명칭을 바꾸어 감옥기능을 지속하였다. 6·25 한국전쟁 당시 형무소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형무제도가 교도제도<sup>19)</sup>로 바뀌면서 '서울교도소'로 변경되었다. 1960년 대 4·19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과 같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였던 민주인사들이 수감되기도 한다. 1967년에는 미결수감자 수감 위주의 기능으로 바

16)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설치되었던 일제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세운 통치기구

17) 일제가 각 지방에 설치한 통감부의 지방 기관

18)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을 날조하고 조작하여 애국지사들을 투옥시킨 사건. 이 사건은 신민회가 와해되는 계기가 된다.

19) 수형자를 교정, 교화하고 재사회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제도



▲ 중앙사 내부

정받아 김구, 강우규, 유관순 등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옥사와 사형장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 때의 고난과 대한민국 근현대의 격동기를 지낸 이곳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복원하고 전시공간을 구성하여 1998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 사형장 앞 '통곡의 미루나무'

다. 사형장 앞에는 '통곡의 미루나무'가 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애국지사들이 이 나무를 붙잡고 조국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원통함을 토해내고 통곡하였다하여 '통곡의 미루나무'라 이름 붙여졌다. 사형장 안에는 같은 시기에 심어진 미루나무가 있으나 애국지사들의 억울한 한(恨)이 서려 잘 자라지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사형장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고 사형 집행을 은폐할 경우 시신을 외부로 몰래 반출하기 위해 만든 시구문도 존재한다.

되면서 명칭도 '서울구치소'로 바뀌며 군부독재정권에 항거하였던 민주인사들이 대거 수감되었다. 이후 서울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였던 서울구치소는 도심의 팽창과 구치소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일어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1988년에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중앙사, 공작사, 사형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사는 다른 옥사들과 연결되어 옥사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였던 2층 건물이다. 1층은 간수들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었고 2층은 수감자들의 전향 교육장소<sup>20)</sup>로 쓰였다. 공작사는 공장 건물로 수감자들의 노역이 이뤄진 곳이다. 이 장소에서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관용물품<sup>21)</sup>을 조달하였

20) 감옥에 수감된 자들을 친일적으로 전향시키기 위해 실시한 교육.

21) 정부 기관이나 국립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 1930년 서대문형무소 배치도



릉(陵)

서오릉  
온릉





# 서오릉

13 김지영



▲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묻힌 서오릉의 홍릉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에 위치한 서오릉은 서쪽에 5기의 능이 모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오릉은 풍수적인 길지에 왕실의 죽분을 이룬 것인데, 경릉(敬陵)·창릉(昌陵)·익릉(翼陵)·명릉(明

陵)·홍릉(弘陵)의 5능을 일컫는다.

서오릉에 처음으로 생긴 능은 세조의 장남인 의경 세자가 묻힌 경릉이다. 훗날 제7대 덕종으로 추존된 의경 세자의 묘는 아버지인 세조가 직접 묘지를 선택했다. 경릉은 조선 왕릉 가운데 왕과 왕비의 위치가 바뀐 유일한 왕릉이다. 원래 산에서 내려다볼 때 임금은 오른쪽에, 왕비는 왼쪽에 묻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경릉은 덕종이 왼쪽에, 소혜왕후가 오른쪽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왕비의 능이 왕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진 곳도 경릉 한곳뿐이다. 덕종은 세상을 떠날 때 왕세자였는데 소혜왕후는 대왕대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을 때의 지위가 높은 소혜왕후가 더 높은 곳에 잠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덕종의 능은 오늘날까지도 처음 만들어졌던 소박한 대군묘의 형식으로 남아 있다. 왕릉은 난간석이나 망주석 등이 없고 석양과 석호도 2쌍이 아닌 1쌍만 설치되어 있다. 이는 덕종이 세자로 있을 때 죽었고, 부왕인 세조가 간소한 장례 의례에 준해 사대석 등을 설치하지 말 것을 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왕비는 생전에 덕종의 추존에 따라 왕비로 책봉되었으므로 능제도 왕릉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성종대에 이르러 왕릉의 규범에 따라 덕종의 능침에도 의물을 가설하고자 하였으나, 덕종의 비이며 당시 대왕대비였던 소혜 왕후가 석물을 가설치 말라 하여 그 모습 그대로 남게 되었다. 왕릉과 왕비릉의 문무석인은 모두 신장이 매우 크고 당

당해보이도록 제작되었는데, 마모가 심해 현재는 그 윤곽만 살필 수 있다.

서오릉에 두 번째로 생긴 능은 창릉으로, 덕종의 아우인 예종과 그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능이다. 왕릉·왕비릉이 동원이강식<sup>22)</sup>을 이루고 있고, 그 석물 배치는 《국조오례의》의 전통적인 예에 따르고 있으며, 석물의 양식상 특이한 것이 있다면 고석의 무늬와 석난간, 대석주 주두양식이다. 병풍석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봉분 주위에 난간석을 두르고 있다. 석물 배치는 일반 왕릉과 같고, 양쪽 능침 아래 중간에 정자각과 홍살문을 잇는 축의 양 옆으로 수라방, 수복방 등이 대칭하여 배치되어 있다. 왕비 능침의 문석인은 왕릉과 달리 왼손에 지물을 쥐고 있으며 투구가 길고 짧은 상모가 있다. 허리띠는 좌에서 우로 대각선을 이루고 있다. 무른 석재를 사용한 탓인지 다른 왕릉에 비해 풍화가 심하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예종릉 앞 장명등은 지붕돌이 없어진 상태이다.

서오릉에 세 번째로 생긴 능은 익릉으로, 숙종왕비 인경왕후 김씨의 능이다. 능제는 기본적으로 《국조오례의》의 제도를 따르면서 부분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의 양식을 좇고 있다. 능표는 송시열 이 찬 했고 심익현이 글씨를 썼다. 봉분에는 병풍석은 생략하고 난간석을 둘렀으며, 다른 왕릉과는 조금 다르게 석주가 아닌 동자석 상단부에 십이간지를 글자로 새겨 놓았다. 문석인은 공복에 복두를 쓰고 있으며, 두 손으로 홀을 쥐고 있다. 뒷면의 관대에는 꽃문양이 보인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어 표정이 살아 있다. 짧은 목에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턱을 홀 바로 위에 올려놓은 형상이다. 무석인은 투구에 있는 상모를 뒤로 넘겼다. 갑옷의 어깨 부분에는 아주 작은 도깨비 문양을 넣었고, 소매는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터져 있다. 흉갑 부분은 구름으로 장식되어 있다. 대부분의 석물이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왕릉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정자각은 능침 언덕 아래에 있다. 현종의 승릉 정자각과 같이 당시 유행하던 익랑이 달려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정자각과 홍살문 사이의 참도는 직선으로 경사가 젖으며, 참도 중간에 계단을 두어 지형에 따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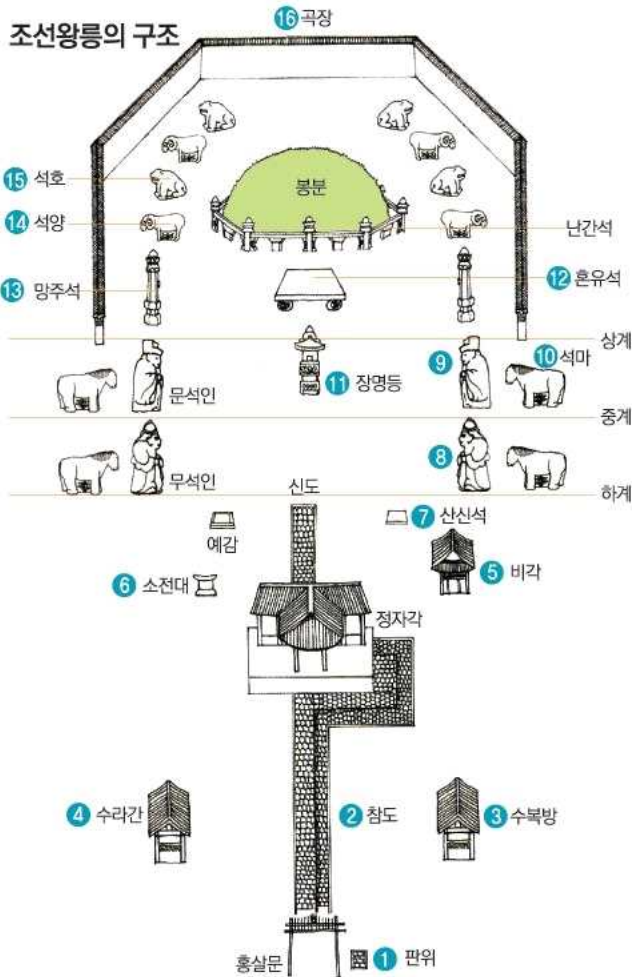
서오릉에 네 번째로 생긴 능은 명릉으로,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의 능이다.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이 쌍분으로 조영되고 인원왕후 능이 우측에 있어 좌측이 숙종의 능과 동원이강의 배치로 된 형식이다. 명릉에 가장 먼저 묻힌 사람은 인현왕후였다. 그 후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인현왕후의 옆에 묻혔다. 훗날 생을 마감한 인원왕후는 따로 잠들게 되었다. 숙종은 자신의 왕릉을 간소하게 만들 것을 희망했고, 그 결과 이후에 만들어진 왕릉은 부장품이 간소화되고 석수와 석인 같은 능 주변 장식물들도 작게 만들었다. 8각 장명등도 4각으로 바뀌었으며, 능침에는 병풍석을 두르지 않았다. 명릉은 조선

---

22)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를 따로 봉안하는 형식

의 능제상에 한 시기를 이루었으니 즉 그 제도는 《속오례의 산릉의》의 골자가 되었고 조선 후기 치장의 근간이 된 《상례보편 산릉의》의 기초를 이루었다.

서오릉에 마지막으로 생긴 능은 홍릉으로, 영조 원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이



▲ 왕릉의 구조

다. 영조는 왕후의 택조를 정하면서 장차 함께 묻히고자 허석의 제도를 쓰고 능상석물은 쌍릉을 예상하여 배치하여 놓고 있다. 현재 홍릉 우측의 공간은 바로 이것으로, 영조의 능이 동구릉에 자리잡게 되자 빈 채로 남아 있게 되었다. 홍릉은 병풍석이 없는 능침에 12칸의 난간석, 2쌍의 석양과 석호, 3면의 곡담, 4각의 장명등 옥개등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숙종의 명릉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의 제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홍릉의 무석인은 투구와 등에 장식이 많이 되어 있다. 뒷면에는 문양이 촘촘히 놓여져 있는 목 가리개를

위로 올렸다. 갑옷의 등 부분에는 물고기 비늘무늬가 조각되어 있고, 가슴 부분은 구름 형태의 판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는 5능 외에 명종의 첫째 아들 순회세자의 순창원이 경내에 있으며, 최근 숙종의 후궁 장희빈의 대빈묘도 경내에 옮겨 놓아, 경내에 총 능5·원2·묘1기가 있다. 또한, 서오릉은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198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 왕릉의 구조

조선 왕릉의 구조는 크게 입구에 해당하는 홍살문, 정자각, 봉분이 위치한 능침으로 구분되어 있다. 조선 왕릉으로 맨 처음 들어가면 재실이 있다. 재실이란 능에서 지내는 제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 곳이다. 이곳은 왕릉 관리의 총책임자인 능참봉이 상주하여 일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재실을 지나면 금천교가 보이고 이 금천교를 건너면 왕릉의 주인인 왕의 공간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홍살문이 있다. 홍살문은 붉은 색의 둥근 기둥 두 개를 세운 뒤 위에 태극 문양이 있는 살을 박아놓은 것으로 왕릉이 신성한 공간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홍살문 오른쪽 옆으로는 배위가 있다. 배위는 넓이가 가로 세로 3미터 정도인 작은 단으로서 ‘망릉위’, ‘판위’로도 불린다. 이것은 제향<sup>23)</sup> 행사 때 망릉례 등을 행하던 곳이다. 홍살문을 지나면 참도가 등장한다. 참도는 왕이 걷는 길로써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왕릉의 주인인 선왕이 현재의 왕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인 왼쪽 참도는 선왕의 혼령이 걷는 곳이고 낮은 곳인 오른쪽 참도는 참배를 간 임금이 걷는 곳이다. 이 참도를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다소 초라해 보이는 작은 집 한 채가 놓여있다. 이것의 명칭은 수복방으로 능을 지키는 관리인인 수복이 머무는 곳이다. 참도를 따라 걷다보면 정면에 정자각이 보인다. 정자각은 ‘정(丁)’자의 모양을 띠다고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 정자각은 왕릉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로서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이 정자각은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자각은 참배자가 동쪽으로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서쪽으로 내려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참배자가 정자각 뒤의 봉분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여 왕릉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정자각의 동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두 개인 반면 서쪽의 내려오는 계단은 한 개다. 즉, 동쪽에 위치한 두 계단으로 왕과 돌아가신 선왕이 함께 올라가 제사를 지내지만 서쪽으로 내려올 때는 현재의 임금만이 내려오고 선왕은 정자각을 바로 통과하여 봉분 쪽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정자각은 또한 기둥 아래에 흰색 띠가 둘러져 있다. 이것은 이른 아침 또는 안개가 낀 흐린 날, 정자각이 기둥의 흰색 띠로 인하여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정자각 정면 오른쪽에는 돌아가신 선왕의 업적이나 생애를 새겨놓은 비각<sup>24)</sup>이 있다. 정자각 뒤 서쪽에 위치한 작은 돌은 예감이다. 예감은 제사를 지낸 뒤에 종이를 태우는 곳이다. 이 예감은 '소대', '망료위'라고도 한다.

23)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24) 비석에 글을 새김. 또는 그런 비.



▲ 온릉의 전경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온릉은 조선 제11대 임금은 중종의 원비인 단경왕후 신씨의 능이다. 온릉의 정식명칭은 양주 온릉으로서 사적 제210호로 1970년 5월 26일에 지정되었다. 현재 일영봉 아래 자리하고 있으며 비공개 왕릉인데 그 이유는 군부대 바로 옆에 위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단경왕후 신씨는 익창부원군 신수근<sup>25)</sup>의 딸로서 1499년 중종이 진성대군일 당시에 혼인하였다. 하지만 1506년 중종반정으로 인하여 왕후가 되었으나 아버지인 신수근이 연산군의 매부인데다가 중종반정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역적의 딸로 불리게 되며 왕후로 책봉된 지 7일 만에 폐위되었다.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 친정 묘역에 안장되었으나 1698년 숙종 24년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으며, 영조 15년인 1739년에는 다시 왕후로 복위되어 묘호를 단경으로 바꾸고 무덤은 온릉이라는 능호를 받았다.

25)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외척, 연산군의 처남이자 세종의 외증손

온릉은 추봉된 왕비릉의 예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략한 편이며, 석양과 석호 각 1쌍을 배치하였고, 혼유석 1좌, 양측에 망주석 1쌍을 세웠으며, 3면의 곡장을 설치했다. 곡장을 두른 봉분은 낮은 언덕에 조성되어 병풍석과 난간석이 없다. 정자각 왼쪽에 자리하는 수복방 건물은 초석만 남아있고, 현재 홍살문은 서남쪽으로 옮겨져 있다.

# 읽기 자료

을사조약

을미사변

고종





# 을사조약(乙巳條約)

13 전우향



▲ 을사조약 문서

을사조약은 1905년 러일전쟁<sup>26)</sup>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우리 역사상 러일전쟁에서 을사조약으로 이어지는 1904~1905년은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실상 식민지로 접어들던 암울한 때였다.

먼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가쓰라-태프트밀약<sup>27)</sup>을 체결하여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중주권<sup>28)</sup>을 인정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제2차 영일동맹<sup>29)</sup>을 체결하여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sup>30)</sup>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같은 해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포츠머스조약)<sup>31)</sup>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로부터도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어 마침내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았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23일 ‘한국정부는 시정개선(施政改善)<sup>32)</sup>에

26) 1904~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

27) 1905년(광무 9) 7월 29일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체결한 협약.

28) <법률> 한 나라가 국내법의 범위 안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외교를 지배하는 특수한 권력.

29)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하여 러시아의 동진(東進)을 방어하고 동시에 동아시아의 이권을 함께 분할하려고 체결한 조약.

30) 감독하고 관리함.

31)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1905년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강화조약.

32) 정치(政治)를 좋게 고침.

대해 일제의 충고를 허용한다' 라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하고, 내정간섭의 길을 열었다.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대한시설강령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후 한일의정서 시행세칙을 내세워 군사행동과 토지의 점령·수용을 자의적으로 단행했으며,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한일 외국인 고문초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체결하게 하고, 군사·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 체결은 1905년 11월 일본 추밀원장(樞密院長)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特派大使)<sup>33)</sup>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 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알현<sup>34)</sup>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치<sup>35)</sup>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 왕 친서를 봉정하며 보호조약의 강제체결을 위해 회유와 협박을 거듭했다. 고종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11월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각료들을 일본 공사관에 불러 보호조약의 승인을 꾀하였다. 그러나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경계를 선 가운데 설 새 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 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무력시위를 벌이는 공포분위기 속에 열린 이 회의에서도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다시 궁중에 들어가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어전회의(御前會議)<sup>36)</sup>를 열게 되었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정부의 각부 각료들은 일본 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하야시 공사는 이토를 불렀다. 헌병사령관까지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성여부를 물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법무대신 이하영,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은 이토의 강압에 못 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 5대신만으로 다시 회의를 열었다.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33) <정치> [같은 말] 특파 전권 대사(특정한 사명을 띠고 일시적으로 특별히 파견되는 전권 대사).

34) [명사]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

35) [명사] 제기된 문제나 일을 잘 정돈하여 처리함. 또는 그러한 방식.

36) 임금의 앞에서 행하는 회의.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사이에서 이른바 '한일협상조약'을 승인받았다. 이를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sup>37)</sup>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sup>38)</sup>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1명의 통감(統監)<sup>39)</sup>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sup>40)</sup>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內謁)<sup>41)</sup>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sup>42)</sup>을 설치하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sup>43)</sup>한다 등이다.

을사조약에 따라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2월 21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였다. 또한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를 초대통감으로 임명한 데 이어, 1906년 1월 31일 주한일본공사관을 비롯한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 각국의 주한공사들은 영사관<sup>44)</sup>을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906년 3월 13일부터 통감부는 조약 내용과 달리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하는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참정대신 이하 각부대신이 참여하는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이를 주재하면서 내정에서까지도 우리 정부를 총지휘하기 시작했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국권을 유린당하자, 전국은 의병을 일으키고 을사오적 암살을 기도하고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순국자결이 잇따라 일어나는 등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었다. 을사조약 직후인 11월 19일부터 관료 및 유생층이 역적 처단과 조약 파기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11월 20일 장지연(張志淵)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37) <정치>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국에서 파견되는 영사와 그 나라의 거주자 가운데 무보수로 선임하는 명예 영사의 두 가지가 있다.

38)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해 개방한 제한 지역.

39) 정치나 군사의 모든 일을 통솔하고 감독함. 또는 그런 사람.

40) 직무상으로 파견되어 한곳에 머물러 있음.

41) 은밀히 찾아가 뵈.

42) <법률>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 관리관의 아래, 부이사관의 위이다.

43) 일을 맡아서 처리함.

44) <법률> 영사가 주재하는 곳에서 사무를 보는 공관(公館).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에 조인한 매국 대신들을 통렬히 공박하자, 국민들이 일제히 쫓기하여 <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 등도 조약의 무효와 각 지방의 조약반대운동을 알리는 글들을 실으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서고 반일여론을 확산시켜나갔다.

한편, 유생들과 전직·현직 관리들이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파기를 주청하는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시종무관장 민영환을 비롯하여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 법무주사 송병찬, 전 참정 홍만식, 참찬 이상상, 주영공사 이한웅, 학부주사 이상철, 병정 전봉학, 윤두병, 김봉학, 송병석, 이견석 등의 뜻있는 인사들이 자결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수하고 국권침탈의 울분을 토했다. 상소자 대부분은 대한제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조약안의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사조약 폐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국제조약을 의정부회의의 검토를 거쳐 황제에게 상주(上奏)<sup>45)</sup>하여 재가(裁可)<sup>46)</sup>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사조약은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비준<sup>47)</sup>하지 않은 것이어서 조약성립절차를 완성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또 설사 성립된 것이라 보아도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어서 절대적 무효, 즉 원천적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은 사실 잘못된 것이며 억지로 맺은 조약을 뜻하는 을사늑약이 옳은 표현이다.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대응방안을 보면,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현실부인적 방법에서부터 상소운동을 통한 조약파기 주장, 국제열강<sup>48)</sup>을 상대로 한 밀사외교 등 다양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당시의 정세를 인식하는 틀에 있어서는 대부분 만국공법<sup>49)</sup>에 대한 유교 관념적 이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육과 실업 등에 걸친 실력의 양성을 통해 국권의 회복을 꾀하려는 자강운동(自強運動)<sup>50)</sup> 역시 유교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자신회·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서우학회·상업회의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학교의 설립이 잇따르기에 이르렀다.

45) <역사>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던 일.

46) <역사>왕이 직접 안전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

47) <법률>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48) 여러 강한 나라. 이들은 국제 문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9) <법률> ‘국제법’의 전 용어.

50) 1905~1910년경 경제적·문화적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을 표방했던 운동

# 을미사변

13 김장운

을미사변이란 고종 32년, 1895년 일본공사인 미우라 고로가 주동자가 되어(대원군에 대한 혐의가 모호하여 대원군의 개입여부를 명확히 따질수 없음.)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일본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변이다. 을미사변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되어오고 있으며 을미사변의 사실규명에 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진 을미사변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모두 을미사변의 준비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을미사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이 부정확 하다. 어떠한 사료를 사용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경우에는 을미사변이 자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에 을미사변에 대하여 연구하기를 기피하고 후에는 을미사변 사건 당일에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인 미우라, 스기무라, 기쿠치, 고바야카와 등의 행적을 매우 소략하게 기록하면서 을미사변은 대원군이 주도한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진행되어진 을미사변에 대한 연구에서는 을미사변의 목격자인 사바쥔(사바틴이라고도 알려져있다.)의 증언과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을미사변 당일의 상황을 조명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을미사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을미사변 중에서 대원군에 대한 혐의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사변에 대한 내용은 제 3차 김홍집내각이 들어서게 되면서 친미세력과 친러세력이 우세해지면서 친일세력이 많이 약화되어있는 상태였고, 주한일본공사인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정부에게 약조한 증여금 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조선 정계 내부에서는 배일감정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로인하여, 일본공사는 이노우에 가오루 대신에 미우라 고로가 파견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조선정계 내부에서는 일본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실시하게 된 근대적 제도를 구제도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러한 조선 정계의 배일 분위기로 인해 미우라 고로는 명성황후 시해계획을 세우게 되고, 한성신보사의 사장인 아다치에게 6,000원의 거사자금을 지불하고 왕비시해 전위대로 삼게된다. 이러한 시해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던 도중에 구제도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던 조선 정부는 일본 공사관에 신식 훈련대 해산과 무장해제 및 민영준의 궁내부대신 <sup>51)</sup>임명을 통보하게 된다. 급변하는 조

선 정계에 불안감을 느낀 미우라 고로는 명성황후 시해계획을 빠르게 진행하여 10월 8일 새벽으로 정하고, 시행하게 된다. 일본인 자객들은 서대문을 거쳐 우범선, 이두황이 지휘하던 조선훈련대와 합류하게 되고 광화문을 통과하지만 여기서 훈련대 연대장인 홍계훈과 군부대신 안경수가 1개 중대의 시위대 병력으로 이들의 대궐 침범을 제지하려 하다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자객들은 궁내부 대신 이경직과 홍계훈을 살해하고, 왕비의 침실인 옥호루에 난입,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황후의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사른 뒤에 뒷산에 묻는다.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장면은 고종, 황태자 뿐만 아니라 미국인 교관이었던 다이, 러시아 기사 사바쎄 외에 많은 조선인이 목격하여, 국내외에 빠른 속도로 알려지게 된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바로 유길준, 서광범을 비롯한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제 4차 김홍집내각이 들어서게 된다. 이 사건은 항일의병 활동을 부추겼으며 아관파천의 계기가 된다.



▲ 명성황후가 시해된 옥호루.

앞서 말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을미사변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을미사변에 대한 역사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수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52)을미사변이 발생한 직후에 뫼텔, 알렌, 힐리어, 베베르 등은 대원군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일본인의 경복궁 침입, 대원군의 경복궁 출발지체, 일본공사관의 문서위조 등 대원군이 배후라고 하기엔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들이 대거 드러났기 때문이다. 53)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로는 대원군은 아마 일본에 의해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1895년 4월 ‘이준용 역모사건’ 당시에 대원군은 특별법원의 심리기간 중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5월에 이준용이 강화도 교동도에 유배를 당하자 대원군은 교동도까지 방문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아, 대원군은 손자인 이준용에 강한 애착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미우라 공사의 명령을 받고 대원군과의 4개

51)조선 후기(고종 31년, 1894년에 창설)에 왕실 부속 기관을 통괄하던 관청인 궁내부의 각 사(司)를 통솔하던 첫 번째 벼슬,

2)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제 39집』. 2009. p.202 -김영수. 「을미사변, 그 하루의 기록」 발췌.

53)「서울신문」 2012년 09월 03일 21면 참고.

조 약속초안<sup>54)</sup>을 완성한 스기무라는 아마 아들인 이재면과 손자인 이준용에 대한 애착을 대원군의 정변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스기무라의 제안은 대원군의 정변 참여를 유도하는 명분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원군은 을미사변 당일 경복궁으로 향했다. 대원군이 정변당일 경복궁으로 향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1880년대부터 대원군과 명성황후는 1889년 9월에도 정국주도권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갈등하고, 대원군은 삼국간섭 이후 정국을 주도한 명성황후의 주도권을 단절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스기무라가 대원군의 손자에 대한 애착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만일 대원군이 4개조 약속초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손자인 이준용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고 대원군을 위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본과 결탁하는 것은 대원군의 정치적 이미지에 큰 흠집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미사변 당일 오키모토가 새벽 1시에 대원군을 찾아왔으나 대원군은 새벽 3시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헌데 스기무라는 사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원군의 정부 간섭을 금하고 이준용을 멀리 보내 왕비와 왕세자를 안심시키는 것까지 신경을 썼다.” 라고 밝힌다. 즉 왕비를 안심시



▲ 경복궁에 있는 명성황후 조난비

킨다는 대목까지 언급하여 대원군에게 왕비의 암살계획을 은폐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말은 곧 대원군은 정변의 전체적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본자객이 명성황후를 암살하는 계획마저 몰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원군에 대한 의문점 말고도 명성황후에 대한 의문점 또한 존재한다. 우리는 명성황후가 궁녀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궁녀로 위장하여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일본자객들은 왕비를 찾아 왕세자비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었고 후에 왕

54)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제 39집』. 2009. p.203 -김영수. 「을미사변, 그 하루의 기록」 발췌.

‘첫째, 대원군은 국왕을 보좌하는데 단지 궁중의 사무만 담당하여 정부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대원군은 궁내부의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며, 정부 관원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둘째, 대원군은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등의 개혁파 인물을 중용하고, 외국인 고문관의 의견에 따라 정치개혁을 실행한다. 셋째, 이재면을 궁내부대신, 김종환을 궁내부협판에 임명한다. 넷째, 이준용을 3년간 일본에 유학시킨다.’

비의 시신을 찾았을 때 왕비는 궁녀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허나 일반적인 궁녀의 모습과 달리 왕비의 시체는 붉은 혈흔을 뿜으며 신체의 많은 부위가 노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점에서 추측 해볼 수 있는 것은 왕비가 일본자객에 맞서 옷이 헤어질 만큼의 격렬한 저항을 했거나 혹은 살해당한 후에 사체가 누군가에 의해 옮겨졌을 가능성 또한 있다.

또한 왕비의 몸에 석유가 뿌려져 불에 탈때도 왕비가 죽은 상태가 아닌 부상당한 상태였을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55)러시아의 육군 중장인 윤페르베르게르의 1897년 한국방문 보고서를 보면, “죽원에서 타다남은 뼈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 뼈 조각의 모습을 보면 머리의 앞부분과 팔부분의 뼈가 땅속에 움푹 들어간 채 묻힌 채 발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윤페르베르게르는 이에 대하여 “부상을 입은 왕비가 생존한 상태였기 때문에 머리와 팔로 불을 피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다.

을미사변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암살자로 자객이 아닌 일본군부의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당시의 외교 사료를 살펴보게 되면 주한 일본공사관 경부 오기와라가 명성황후의 시신처리를 주도했다고 한다. 또한 증언에 따르면, 일본공사관 순사 와타나베가 곤령합에서 명성황후를 마지막으로 추적했다고 한다. 즉 명성황후를 암살자는 일본 자객일수도 있으나, 일본군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명성황후 암살자의 핵심은 주한 일본공사관, 일본정부 라는 것이다.

을미사변은 1895년에 일어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비극중 하나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현재까지도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

55) 수선사학회 『사림 제 41권』 2012 p.202 - 김영수, 「을미사변을 둘러싼 기억과 의문」 발췌



## 고종(高宗)



▲ 고종

13 임정근, 13 민지인

고종은 조선의 제 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제1대 황제인 광무제이다. 그는 대한제국을 통치할 당시 자주적인 연호로 건양, 광무를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제 고종의 삶을 보면 그의 출생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본래 영조와 사도세자의 후손이

아니라 인조의 직계 후손이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조대비와의 약속으로 그는 익종의 양자 자격으로 조선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즉위 초기 10년은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실권은 흥선 대원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실권을 가진 흥선대원군은 이전에 권력을 많이 쥐고 있던 외척을 축출하였다.

즉위 초기에 서구 열강의 개항 압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화되어 프랑스(1866년 병인양요), 미국(1871년 신미양요) 등과 강화도에서 군사 분쟁을 겪었으나, 흥선 대원군은 이들을 모두 물리쳤다. 국내적으로는 부정부패로 지탄받던 서원을 정리하고 비변사를 완전 폐지하였다. 하지만 대원군은 국왕의 고유권인 인사권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결하였다. 인사발령을 할 때는 언제나 그가 미리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올리면 고종은 그것을 따라 낙점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독단적인 정책인 서원 철폐 등의 개혁과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유생들과 민심의 반발은 ‘최익현의 상소’<sup>56)</sup>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고

### 56) 최익현의 상소

지금 나랏일을 보면 폐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심한 것을 보면, 만동면의 절거로 임금과 신하 간의 윤리가 썩게 되었고, 서원의 철폐로 스승과 제자 간의 의리가 끊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를 논하자면 만동묘를 다시 설치하고 서울과 지방의 서원을 흥기시킬 것이며, 토목 공사와 원남전의 경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는 전하께서 어린 나이로 정사를 전담하지 못하여 생긴 일이니,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지위는 높되 나라의 정사에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소

중은 흥선대원군의 섭정에서 친정으로 바뀌어 권력을 되찾았다. 친정을 하기 시작했지만 초반 ‘서계 거부 사건<sup>57)</sup>’이라 불리는 일본 측과의 외교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로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 조선을 압박하고, 결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이 성립하고 난 뒤부터 고종은 세계정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 개화운동을 전개하고 이러한 노선에 따라 내정개혁을 실시하였다. 내정개혁에서 고종이 관심을 가장 기울인 것은 군제였다. 즉 고종은 과거의 구식 군대를 축소하고 일본식 신식 군사훈련을 도입하여 별기군을 조직하였다. 또한 행정기구의 개혁에 착수하여 청나라 정부의 총리아문 기구를 모방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12사를 두어 각기 사무를 나누어 보게 하였다.

하지만 개항을 한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마련되어 곡물 유출이 심해 쌀값이 폭등하였다. 쌀값 폭등으로 도시 빈민의 반발이 심해졌고 구식 군인의 차별에 대한 불만과 겹쳐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불만들이 개항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여 복고적 정책을 추진하는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권력을 잃은 민씨가 요청하여 청나라 군대가 출병하게 되었다. 청의 출병으로 군란이 진압되고 흥선대원군이 청으로 압송되어가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고종은 1개월 만에 복권하였으며, 그 뒤로부터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조선에 진주한 위안 스카이<sup>58)</sup>는 고종을 배알하는 자리에서도 기립하지 않고, 고종을 ‘혼군’이라 칭하면서 폐위를 주장하였다. 이에 고종은 임오군란 이후 비대해진 청나라 세력을 견제하고자 민영익 등을 보빙사로 미국 등 서방에 파견하고 서재필 등 16명을 일본으로 보내 신식군사기술을 배우게 하였다.

이러한 고종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청의 내정 간섭 심화로 정부의 개화 정책이 부진하였다. 또한 김옥균의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실패하면서 급진 개화파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어있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청나라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조선에서 청군 일부를 철수하였고, 급진 개화파는 일본에게 재정적, 군사적 협조와 지원을 약속받아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지만 청나라의 군사적 압력과 지나친 외세(일본)에 대한 의존으로 민중의 지지가 부족하여 급진 개화파

서.

57) 조선 후기 일본의 문체가 변경된 후에 조선으로 보낸 국서를 조선이 거부한 사건이다. 서계 사건은 주로 이 사건을 가리킨다.

58) 중국의 군인·정치가이며 총리교섭통상대신으로 조선에 부임하여 국정을 간섭하고 일본, 러시아를 견제했다. 청일전쟁에 패한 뒤 서양식 군대를 훈련시켜 북양군벌의 기초를 마련하고 탄쓰통 등 개혁파를 배반하고 변법운동을 좌절시켰다. 이후 의화단의 난을 진압했으며 신해혁명 때 청나라 조정의 실권을 잡고 임시총통이 되었고, 이어 스스로 황제라 칭하였다.

의 혁명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화되고 고종은 개화파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갑신정변으로 말미암아 급진 개화파와 그들을 후원한 일본을 경계하며 의심하게 되어 개화 운동은 거의 중지되었다.

개화 운동은 중지되었지만 이전에 근대 문물 수용을 위한 비용과 배상금 지불(제물포 조약<sup>59</sup>), 한성 조약<sup>60</sup>)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는 수령의 수탈을 강화시켰고,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본격화되면서 쌀 유출이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동학의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포접제<sup>61</sup>)를 통한 전국적 조직이 확보되었다. 동학은 이러한 조직력을 이용하여 교조신원 운동을 하다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정부는 청나라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텐진 조약<sup>62</sup>)을 구실로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한양을 점령한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에 근대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일본군은 왕궁을 포위하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일파를 축출하고 김홍집을 비롯한 중도 개화파를 중심으로 친일 정부를 수립하여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때 흥선대원군은 섭정을 하였으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 후에도 갑오개혁은 이어져 개국 기원을 사용하여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별, 6조 체계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이 때 홍범 14조라고 하는 법령을 반포함으로써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흥선대원군은 일본에 의해 권력에서 물러났는데 그는 장손인 이준용을 왕위에 올리려다 사전에 발각되었다. 이준용은 강화 교동도로 유배되고, 대원군은 아소정<sup>63</sup>)에 유폐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직후 서양 삼국, 즉 러시아·독일·프랑스가 일본에 간섭하여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얻은 이권을 내놓게 하였는데, 이를 삼국간섭이라 하며, 그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서의 지위도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

---

59)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발생한 일본 측의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다룬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

60) 1884년(고종 21)의 갑신정변(甲申政變) 뒤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일본과 맺은 조약.

61) 교주 아래에 몇 십 개의 포를 두고 그 포의 대접주 아래에 또 수십 명의 접주를 둔 긴밀한 조직망.

62) 1885년(고종 22년) 4월 18일 청나라의 이홍장과 일본 제국의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서 조선 내에서의 세력 균형을 위해 맺어진 조약이다.

내용 : 1.청과 일본은 4개월을 기한으로 조선에서 동시에 군대를 철수한다.

2.조선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훈련 교관을 보내지 않고, 조선에 제3국인 무관을 고용하도록 권고한다.

3.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청나라나 일본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사변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한다.

63) 흥선대원군이 사용하던 별장이다.

한 상황을 주시하던 고종과 민비는 서방의 힘을 보고 친서방 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본보다 훨씬 강하게 여겨지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도록 하



▲ 구러시아 공사관의 옛 모습

극함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후에 고종은 흥선대원군이 을미사변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되어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빈소에 찾아가지도 않았다.

을미사변 후 감금당하고 있던 고종은 당시 친러파였던 이완용 등의 설득과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있던 자신의 의지로 왕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아관파천을 한 다음 바로 고종은 을미4적으로 김홍집, 유길준, 정병하, 조희연을 거론하여 이로 말미암아 김홍집 내각을 붕괴시켰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고종은 경운궁(오늘날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조를 명하였다.<sup>64)</sup> 그에 따라 독립문 건립을 독립협회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졌으나,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원구단을 지었다. 그리고 하늘에 고하는 제사를 지낸

는, 일종의 이이제이<sup>64)</sup> 정책을 펼쳤다. 일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일본을 견제하려는 민비를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민비와 갈등을 빚고 있던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여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된다. 그 뒤 고종은 감금당하고 김홍집이 을미개혁을 시행하여 연호를 건양으로 고치고 태양력을 채용하였으며 단발령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상황 즉,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으로 인한 정책이 백성의 감정을 자



▲ 구러시아 공사관의 현재 모습

64)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다스림.

65) 《독립신문》 1896년 11월 7일자 논설에서 이를 “조선이 이제 문명 진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한 경운궁 중심의 도시 정비는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통감부에서는 남산 밑에 소재한 통감부의 북쪽 정면 방향으로 도로를 놓는 계획(경성지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과 1919년 6월 25일에 공개된 총독부안(경성지구개수예정계획선도)에 따라 파괴되며, 경운궁 앞 광장도 도로와 로터리가 설치되었다.

후에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로 새로이 정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짐은 생각 건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高麗) 때에 이르러서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이 삼한(三韓)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靺鞨)의 지경까지 이르러 상아,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라국(耽羅國)을 차지하여 굴, 유자, 해산물을 공납(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 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王業)을 세웠으니, 예악(禮樂)과 법도는 당 요(唐堯)와 우순(虞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같은 터전을 남겨 주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上帝)께서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와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白嶽山)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 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쳐 썼다.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다.

아! 애당초 임금이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황제의 칭호를 선포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

— 고종실록 광무 1년(고종 34년) 10월 13일

대한제국 선포 이후 독립 협회가 만민 공동회로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자 보수 세력은 위기를 느꼈다. 보수 세력은 독립협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국체를 공화정으로 바꾸려 한다고 거짓으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서 고종은 관민 공동회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보수 대신들이 지원하는 황국 협회로 독립 협회를 해산시켰다. 이 당시 많은 문물을 들여와 고종이 신문물에 대해 넓은 이해와 포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종은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여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정치면에서 황제권의 강화로 위로부터의 개혁에 불가능한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을

보였으며, 자주적 시행을 표방했으면서도 열강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선포에 회의적인 유길준, 윤치호 같은 이들은 단순히 국호만 바꾸고 칭제건원을 한다 하여 국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고종은 황제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일본의 침탈에 대비하여 정보기관 ‘제국익문사<sup>66)</sup>’를 설치하고 육군과 해군의 창설을 준비하였다. 이에 고종은 군대 창설과 관련하여 징병제도 실시를 예정하는 조칙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협력을 당부한다. 또한 시위대 병력을 갖추고, 군부 총기제조소를 건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군대 창설 및 그와 관련한 성과는 을사조약 이후에 계획 자체가 없어지거나 성과가 철거되었고, 급기야 1907년 군대가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러시아군이 만주를 점령하며 한반도에 가까워지자 일본의 러시아 견제로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고종은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대한제국의 수도를 침탈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하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황제에게 친서를 보내어 동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고종은 그 뒤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서울을 점령한 일본의 강요로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 지역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이에 더 나아가 러일 전쟁의 판도가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다시금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제1차 한일협약은 중요한 외교 안건은 반드시 일제와 협의를 해야 하며, 제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고용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지배권을 약속받게 되었고 결국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신 일본인 통감을 둔다는 내용의 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 을사조약은 서울 전면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궁궐까지 포위하여 사실상 황제를 감금하는 등 군사적 위협과 동시에 을사 5적 등을 이용, 회유함으로써 조약의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제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자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을사조약이 조인된 중명전<sup>67)</sup>조약의 체결은 대한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인 을사의병이 전개되었으나 일제는 이를 억압

66) 1902년 6월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이 황제 직속으로 설립한 비밀정보기관이다.

67) 1897년경 황실 도서관으로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에 의해 설계된 서양식 전각이다. 원래의 이름은 수옥헌이었으나, 1904년 경운궁(현 덕수궁) 화재 이후 고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중명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중명전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하였다.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 보호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지난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 없이 여유 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찮은 소인들에게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궁실을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토목 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잇속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구 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고(國庫)는 고갈되었으며 악화(惡貨)가 함부로 주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물자를 자취하니 온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새 조약을 강제로 청한 데 대하여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이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머리를 굽실거리며 따랐기 때문에 조정과 재야에 울분이 끓고 상소들을 올려 누누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일치된 충성심과 애국심은 어두운 거리에 빛나는 해나 별과 같고 홍수에 버티는 돌기둥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조약을 도로 회수해 없애버릴 방도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투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의 내정과 지금의 외교를 보면 어찌 상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실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종묘사직과 백성들은 필경 오늘날의 위태로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의 길은 자강(自強)에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닦고 외교를 미답게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일을 그르친 무리들을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 공사를 정지하고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宮房)의 사재 축적을 엄하게 징계하고 궁인(宮人)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

—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대한 광무 9년 양력 12월 1일자 5번째기사

그러나 고종은 윤치호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강원도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해가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반대 운동에 힘을 얻은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고종은 한일협약이 무효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황제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의 노력으로는 험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 등이 있다. 고종의 무효선언 발표는 훗날 한국에서 을사조약의 무효와 불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본이 을사조약 등 각종 조약을 강요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었다. 고종은 이를 척결하기 위하여 1907년 이준, 이상설, 이위종 밀사를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파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본의 압력으로 고종은 황태자(순종)에게 양위하였다.



▲ 덕수궁(경운궁) 함녕전

고종 황제가 마지막으로 거처하시던 곳

이후 일본의 영향력 증대가 가속되었으며 마침내 일본의 강압으로 1910년 한일병탄(68)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고종은 일본으로부터 이태왕의 작위를 받고 덕수궁에서 생활하였다. 그 뒤 덕수궁에 생활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고종의 독살설로 일본 식민 지배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고종의 죽음에는 심장마비가 사인이라는 자연사 설과 자살설 등이 나돌았다. 또 고종이 독살당하였다는 독살설이 유포되기도 하였는데, 윤치호에 의해 고종의 독살설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윤치호는 처음에는 독살설을 불신했지만 궁궐에 출입하던 인사들을 만나면서 독살설 쪽으로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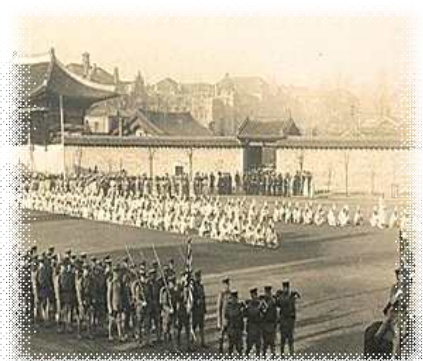
"고종황제가 이 왕세자와 나시모토 공주의 결혼식을 꼭 나흘 앞두고 승하하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말이지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예전에 이미 굴욕을 감수한 고종황제가 이제 와서 하찮은 일에 억장이 무너져 자살했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어린 왕세자의 일본 공주의 결혼이야말로 왕실의 입장에서는 경사스런 일이 아닌가?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왕실 간의 우호관계가 증진될 것이고, 왕세자는 조선의 어떤 여성보다도 더 우아하고 재기 넘치는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다. 만약에 고종황제가 병합 이

68) [명사]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테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들.



전에 승하했다라면, 조선인들의 무관심 속에 저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인들은 복받치는 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옷소매를 적셔가면서 고종황제를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 윤치호일기, 1919년 1월 26일 일요일



하지만 아직까지 고종의 사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고종황제의 장례 행렬

# 참고문헌 <서울지역개관, 궁>

## <서울지역개관>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이경재, 『한양 이야기 - 조선왕조 500년의 도읍 한양 읽기』, 가람기획, 2004.

## <경복궁>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창비, 2011.

이덕수, 『신궁궐기행』, 대원사, 2004.

## <경희궁>

홍석주, 「광해군 대의 경덕궁(경희궁) 창건」, 『서울학연구 3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9, 1~29 참조.

은정태, 「고종시대의 경희궁」, 『서울학연구 3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9, 95~121 참조.

우동선, 「일제강점기 경희궁 전각의 훼손과 변화」,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박성진대한건축학회, 2006, 497~500 참조.

## <덕수궁>

안창모, 『』 덕수궁: 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동녘, 2009.

신영훈, 『한국의 고궁』, 한옥문화, 2005.

김순일, 『덕수궁』, 대원사, 1996.

덕수궁홈페이지 ([www.deoksugung.go.kr](http://www.deoksugung.go.kr))

## <창경궁>

이만희, 창경궁 내전권역 공간구성에 대한연구, 명지대학교, 2010.

송희은, 창경궁의 장소성과 상징성의 사회적 재구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 <창덕궁>

한명기, 『서울의 문화유산 탐방기 (궁궐 기행-창덕궁)』, 서울학 교양총서, 1997.

서울학연구소, 『궁궐지 I - 경복궁·창덕궁』, 서울학 번역총서, 1994.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

창덕궁 홈페이지 ([www.cdg.go.kr](http://www.cdg.go.kr))

# 참고문헌 <종묘, 서대문형무소>

## <종묘>

이덕수, 『新 궁궐기행』, 대원사, 2004.

한수진, 『뚜껑이의 버스로 떠나는 서울 문화여행』, 성하출판, 1999.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서대문형무소>

양성숙, 『105인 사건과 서대문형무소 연구』, 한국민족사상학회, 2009.

편집부, 『식민지의 억압과 한이 서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북한연구소, 2008.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http://www.sscmc.or.kr/newhistory/index\\_culture.asp](http://www.sscmc.or.kr/newhistory/index_culture.asp))

서울신문

(<http://nownew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26030001>)

## 참고문헌 <묘>

### <서오릉>

문화재청 서오릉 홈페이지 ([http://goyang.cha.go.kr/n\\_goyang/index.html](http://goyang.cha.go.kr/n_goyang/index.html))

김이순, 「昌陵의 왕과 왕후 능의 위치 再考」, 2010.

### <온릉>

국립문화재연구소, 『역사의 숲 조선왕릉』, 눌와, 2007.

이호일, 『조선의 왕릉』, 가람기획, 2003.

이우상, 『잠들지 못하는 역사 조선왕릉 1』, 다할미디어, 2009.

디지털 양주 문화대전 (<http://yangju.grandculture.net>)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참고문헌 <읽기자료>

## <을사조약>

박은숙, 『社員 池圭植의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둘러싼 시국 인식』, 한국인물사연구회, 2012.

李相燦, 『을사조약 반대상소와 5대신의 반박상소에 나타난 을사조약의 문제점』,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서영희,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정세인식과 대응방안』, 한국역사연구회, 2007.

노영돈, 『을사조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네이트 백과사전 (<http://100.nate.com/>)

## <을미사변>

김영수, 「을미사변을 둘러싼 의문」, 『사림』, 수선사학회, 2012.

김영수, 「을미사변, 그 하루의 기록」 『이화사학연구』, 이화사학연구소, 2009.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 근현대사 사전』, 가람기획, 2005.

최문형,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1.

숨겨진 한일역사 (<http://www.ko2ja.co.kr/>)

## <고종>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8.

장영숙, 「대한제국기 고종의 정치사상 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왕현종,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논리」, 역사학회, 2010.

김주연 외 1명, 「고종의 부국강병책에 내재된 무의 재해석」, 한국사회사학회, 2011.

이성환, 「고종의 외교정책과 러일전쟁」,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조재곤, 「헤이그 특사와 고종황제 퇴위, 군대 해산」, 내일을 여는 역사, 2007.

최종석, 「미국과 고종황제의 1896년 아관파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8.